

연중 제6주일

2025. 2. 16(다해) | 제2139호

“행복합니다, 당신께서 뽑아 가까이 오도록 하신 이!

그는 당신의 뜰 안에 머물리이다”(시편 65,5)



수원
주보



음성지원QR

[입당송] 시편 31(30),3-4 참조

하느님, 이 몸 보호할 반석 되시고, 저를 구원할 성채 되소서. 당신은 저의 바위, 저의 성채이시니, 당신 이름 위하여 저를 이끌어 주소서.

[제1독서] 예레 17,5-8

[화답송] 시편 1,1-2,3,4와 6(◎ 40(39),5-7)

◎ 행복하여라,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

- 행복하여라! 악인의 뜻에 따라 걷지 않는 사람,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오히려 주님의 가르침을 좋아하고, 밤낮으로 그 가르침을 되새기는 사람. ◎
-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아, 제때에 열매 맺고, 잎이 아니 시들어, 하는 일마다 모두 잘되리라. ◎
-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바람에 훌날리는 검불 같아라. 의인의 길은 주님이 아시고, 악인의 길은 멸망에 이르리라. ◎

[제2독서] 1코린 15,12,16-20

[복음 환호송] 루카 6,23 참조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보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

[복음] 루카 6,17,20-26

[영성체송] 시편 78(77),29-30 참조

그들은 실컷 먹고 배불렸네. 주님이 그들의 바람을 채워 주셨네. 그들의 바람을 저버리지 않으셨네.

1면_사진가회 이춘화(아녜스) 작

윤호요셉 신부의 전례 키워드

"믿음, 희망, 사랑, 영적 기쁨"

오늘 복음은 참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참행복은 물질이 아닌 하느님께 신뢰(믿음)를 둘 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신뢰(믿음)는 제1독서의 내용처럼 타인이나 자기 자신이 아닌 하느님께 둘 때 가능해집니다. 또한, 이 신뢰(믿음)는 하느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형성하게 하며 사랑의 단계로 나아가게 합니다.

이 사랑은 불완전한 사랑이 아닌 완전한 사랑으로 흔들리지 않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느님 때문에 겪는 수난과 고통은 이겨낼 수 있는 고통으로 변화됩니다. 제2독서에서 바오로 사도는 죽은 이들이 부활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부활하지 않으셨을 것이라며, 우리에게 닥치는 수난과 고통에 대한 답을 제시해 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겨냈을 때 얻는 영적 기쁨을 이야기하며 우리에게 희망을 제시합니다.

글 | 조윤호 윤호요셉 신부(봉담 본당 주임)

“**참행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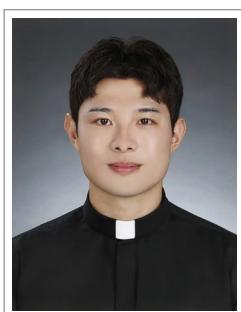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는가?”라는 질문은 많은 매체를 통해서 접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하곤 하지만, “행복이란 무엇일까?”라는 질문에서부터 답을 내리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행복’에 대해서 국어사전에서는 “사람이 생활 속에서 기쁘고 즐겁고 만족을 느끼는 상태에 있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이는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의 차원에서 행복을 정의하는 듯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뜻은 “사람의 운수가 좋은 일이 많이 생기거나 풍족한 삶을 누리는 상태에 있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뜻에서 ‘풍족한 삶’이라는 말은, 저에게는 물질적이고 물리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것 같았습니다. 행복을 느끼기 하는 그 ‘상태’를 위해 돈은 필수적일까요?

유럽과 미국에서 진행된 한 연구에서는 돈이 실제로 행복을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한 사람이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 미국은 연간 약 4억 원이 필요하고, 서유럽은 연간 9천만 원이, 동유럽은 6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개인의 행복에 연간 가격을 매긴 것으로, 연구자들은 ‘동료와 비슷한 나이, 교육, 결혼 및 주택 소유 상태를 가진 사람들일 경우, 자신이 더 많이 번다고 믿는 것이 행복을 느끼기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이들이 말하는 행복은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 내가 물질적 우위에 있을 때 느끼는 만족감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돈은 행복의 정도에 비례할 수는 있으나 돈이 없어도 행복하다

는 연구 결과도 꾸준히 존재하기에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다.’라는 것보다 ‘약간의 만족감을 살 수 있다.’고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행복’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물론 위에서 말한 사전적 정의가 행복에 대한 개념을 잘 표현한다고 생각합니다. 행복이란 ‘좋은 상태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의 소제목은 ‘**참행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하고 굶주리고 미움받고 소외받는 이들’이 되레 행복하다고 말씀하시며, 그들이 하느님 나라에서 받을 상이 크다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느낄 수 있는 좋은 상태의 행복이란 하느님 나라에서의 행복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행복은 개인의 행복을 넘어서는 보편적이며 궁극적인 구원을 위한 하느님께 향하는 길을 의미합니다. 주님께 다가감으로써 추구 할 수 있는 구원이라는 행복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행복을 위해 오늘도 주님께 나아가며 그분과 하나 되는 참행복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글 | 윤대건 대건 안드레아 신부
(신갈 본당 보좌)



북극곰과 벨루가

글 | 심재관 사무엘 신부(수원가톨릭대학교)

‘벨루가(Beluga)’를 아십니까? 흰고래입니다. 아주 귀여운 녀석이죠. 온순하고 호기심도 많아서 처음 본 사람하고도 곧잘 어울린다고 합니다. 아이들에게도 아주 인기가 많아요. 수족관에 가보면 벨루가 앞에는 늘 아이들이 넋을 잃고 앉아 있곤 하죠. 그런데 이 귀여운 친구가 지금 북극에서 아주 곤욕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벨루가를 괴롭히는 범인은 ‘북극곰’입니다. 콜라를 좋아할 것 같은 녀석인데 사실은 아주 힘이 센 맹수 중 하나이죠. 이 녀석이 지금 북극에서 호시탐탐 벨루가를 노리고 있다고 합니다. 동물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약육강식’은 당연하기에 북극곰이 나쁘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짚어보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더군요. 원래 북극곰의 주 먹잇감은 물개와 물범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북극곰이 이들을 사냥하기 위해선 발을 디딜 ‘땅’이 필요해요. 북극에서 그 땅은 ‘해빙(海氷)’이죠. 그런데 이 해빙이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점점 작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보통 해빙이 없는 기간은 6주 정도인데 이 기간이 2개월로 늘어난 것입니다. 그러니 북극곰은 참 난처할 수밖에요. 배고프게 지내야 하는 시간이 6주에서 두 달로 늘었으니 말입니다. 어렵지만 벨루가라도 사냥하며 목숨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죠.

북극곰과 벨루가 사이에 이와 같은 묘한 긴장 관계를 불러일으킨 것은 결국 ‘지구 온난화’ 현상입니다. 지구 온난화란 아시다시피 지구 대기권의 기온이 상승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리고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가 지난 2021년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 현상의 원인은 자연이 아닌 ‘오직’ 인간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이 북극곰과 벨루가 사이를 망쳐 놓은 셈인 것이죠.

이러한 ‘불편한 진실’을 마주한 우리들은 희년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하느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자연의 소중함을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희년은 [환경보전](#)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레위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오십 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다. 너희는 씨를 뿌려서도 안 되고, 저절로 자란 곡식을 거두어서도 안 되며, 저절로 열린 포도를 따서도 안 된다. 이 해는 희년이다. 그것은 너희에게 거룩한 해다. 너희는 밭에서 그냥 나는 것만을 먹어야 한다” (레위 25,11-12).

하느님께서는 모세에게 분부하시어 이처럼 희년에는 땅에 ‘휴식’을 주려 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필요한 것도 바로 휴식입니다. 급격한 기술의 발달은 자연을 혹사시켰습니다. 그리고 자연의 피로는 재앙으로 바뀌어 우리에게 돌아오고 있지요. 그렇기에 희년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연에 휴식을 선물하기 위해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이기(利己)로 인해 북극곰과 벨루가 사이가 더는 나빠져선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마리아’를 부르며 순교한 김 루치아 (축일 9월 20일)

글 | 백형찬 라이문도(전 서울예술대 교수)

김 루치아(1769~1839)에 대한 기록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태어나 자랐으며 어떻게 신앙을 갖게 되었는지 잘 알 수 없습니다. ‘루치아’라고 불린 것을 보면 어렸을 때부터 신앙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김 루치아를 사람들은 ‘꼽추 루치아’라고 불렀습니다. ‘꼽추’라는 말은 등이 심하게 굽은 곱사등이를 낮추어 부르는 말입니다. 김 루치아가 어떤 연유로 등이 굽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등이 심하게 굽었기에 사람들은 그녀를 업신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루치아가 받은 모멸감은 무척이나 컸을 것입니다.

루치아의 남편은 신자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루치아의 신앙생활을 못마땅하게 여겨 교우들을 절대 못 만나게 했습니다. 이런 생활이 계속되자 루치아는 도저히 견디지 못해 남편과 헤어졌습니다. 그러곤 교우들의 집을 전전했습니다. 교우들은 루치아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루치아는 교우들의 일을 도와 힘든 일과 천한 일을 서슴지 않고 했습니다. 또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며 그들이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리하여 적지 않은 비신자가 천주교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비신자인 어떤 양반이 루치아에게 물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지옥이 그렇게 좁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 많은 사람을 지옥에 집어 넣을 수 있소?” 루치아는 “양반님의 작은 마음이 만 권의 책을 품었다 해서 그것 때문에 양반님의 마음이 좁아졌다고 생각할 수 없지 않나요?”라고 반문했습니다. 양반은 배운 것이 없는 그녀가 어떻게 저렇게 교리를 쉽게 설명하는지 감탄했습니다.

기해박해가 시작되자 김 루치아를 비롯해 많은 교우가 체포되었습니다. 루치아는 체포될 당시 일흔 살이 넘은 고령이었습니다. 루치아가 포도청에서 고문을 받고 감옥으로 돌아오면 교우들이 돌보았습니다. 재판장으로 또다시 끌려간 루치아에게 고문이 가해졌습니다. 루치아는 절대 교우들의 이름을 말할 수 없다며 어서 형장으로 데려가 죽여달라고 했습니다. 루치아는 태형(笞刑) 서른 대를 맞았습니다. 굵은 봉등이로 뼈만 남은 몸을 내려치자 ‘딱’ 소리가 났습니다. 계속 그렇게 내리쳤습니다.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참혹했습니다. 결국 루치아는 ‘예수 마리아’를 부르며 순교했습니다. ‘조선 순교자록’(1925년)을 지은 파리외방전교회 프랑스 신부는 김 루치아의 삶을 생각하면 자연히 ‘마리아의 노래’를 부르게 된다고 했습니다.

성화_장동문 作「한국 103위 순교 성인화」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25.

복음화국 소식



유사종교!!

위협의 손길이 우리 아이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유사종교?? 유사종교!!

그리스도교와 유사한 형태를 가장하지만 그리스도교라 인정될 수 없는 분파적 집단으로서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 '하나님의 교회', '통일교', '천부교' 등을 가리켜 '유사종교'라 지칭한다.

! 불안해진 학교 안과 밖

- 부모와 함께 이미 유사종교에 빠진 반 친구가 영화/전시회/공연 등을 함께 보자며 접근, 다른 친구에게 이단 교리를 전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 아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당근마켓이나 인터넷 카페를 통해 가짜 계정으로 접근하여 당근마켓의 카테고리 중 하나인 '동네 생활'을 통해 포교를 시도하거나 카카오톡 내 오픈 카톡으로 모임을 형성하여 유인하고 있다.

! 이젠 나도 20대!! - 기쁨과 설렘으로 유사종교에 더 많이 노출되는 시기

- 대학생 커뮤니티 앱인 에브리타임, MBTI를 이용한 포교
- 가장 많이 사용하는 포교방법으로는 길거리 & 설문조사(40%), 전단지(잡지) & 포스터(26%), 동아리나 모임(13%), 상담 또는 세미나, 교육 등 각종 행사(9%)가 있다.

! 유튜브에도 유사종교가? 네 많습니다!!

자신들과 상관없는 듯 포장하여 활동하지만, 알고 보면 유사종교 산하 유관 단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청년들의 봉사활동을 이용한 단체에 속아 유사종교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단체 가입 시 신중히 알아보고 확인해야 한다.

예시 : HMBC(@HMBCTV 구독자 10.8만명), 하늘 팟(@skypod-official. 구독자 7.76만명

World Mission Society Church of God/Global(@wmscog-golbal 구독자 6.54만명),

ICW 153(International Christian World 지구촌 선교봉사단체, 대학생 봉사단체 ASEZ(<http://asez.org/ko/>)

직장인 청년봉사단 아세즈 와오 ASEZ WAO(<https://saezwao.org/ko/>)

하느님의 숨결로 태어난 우리는 모두 존엄합니다.

인간이면서 하느님을 흉내 내는 유사종교로부터 하느님의 소중한 자녀인 우리 자신을,
우리 아이들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수원교구 유사종교 대책위원회가 지킴이가 되어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 수원교구 유사종교 대책위원회 -



하느님의 자녀들, <율곡회>

글 | 정해숙 소피아(동탄송동 본당)



우리의 첫 만남은 1995년 산본 신도시 공무원 아파트에 입주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교우들이 떠나자 아쉬움에 <율곡회>라는 이름으로 부부 모임(10쌍)을 만들었는데, 벌써 20여 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각자의 본당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여전히 함께하는 율곡회 형제자매들이 있어 참으로 행복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가 함께였기에 가능했습니다. 모두 사랑합니다!



참여하기

함께하기

작가 | 임소정 헬레나

숨은 그림 찾기 - 빵, 왕관, 포도, 뱀, 새



* '7면 함께하기'에 응모하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 정답과 당첨자는 2월 23일자 주보 10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사발령(2025. 2. 3.부)

주교·신부명	계시던 곳	가시는 곳
문희종 주교	교구장 대리 주교 제2대리구장 주교(겸)	총대리 주교 제2대리구장 주교(겸)
이강건 신부	제1대리구 사무처장	제1대리구장 서리 제1대리구 사무처장(겸)

제3대 교구장 최덕기(바오로) 주교 서품 29주년

2월 22일은 수원교구 제3대 교구장 최덕기(바오로) 주교님의 주교 서품 29주년입니다. 주교님께서 영육간에 더욱 건강하시고 하느님의 은총을 충만히 받으시도록 교구민의 정성어린 기도 부탁합니다.

주교를 위한 기도

- 모든 믿는 이들의 목자요 인도자이신 하느님,
하느님의 일꾼 최덕기(바오로) 주교를 교회의 목자로 세우셨으니
그를 인자로이 굽어보시어
올바른 말과 행동으로 맑은 양 떼를 보살피고
마침내 그들과 함께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 아멘.

금주에 기억할 사제



이계항(베드로) 신부
2011년 2월 19일 선종



김진완(안드레아) 신부
2016년 2월 20일 선종

교구 알림

2025년 1학기 교구 성경공부 개강

개강 2.24(월)~28(금)

과정 첫걸음 과정, 일반 과정

성경통독 과정, 은빛 과정, 지혜 과정

비용 첫걸음 과정, 일반 과정

통독 과정-2만 원(교재비 별도)

은빛 과정, 지혜 과정-1만 원(교재비 별도)

신청 각 본당 사전 접수

문의 031) 8019-5400~1 제1대리구 성경사목

031) 360-7633~5 제2대리구 성경사목

제51차 젊은이 성령 안에 새 생활 피정

일자 3.7(금)~9(주일) 2박 3일

장소 갓등이 피정의 집

인원 선착순 40명

비용 13만 원

마감 2.21(금)

참고 v2.casuwon.or.kr '교육행사'

문의 031) 360-7636 제2대리구 청소년3국

제11기 대건청소년해외봉사단 참가자

기간 7.24(목)~8.2(토) 8박 10일 예정

장소 라오스 폰홍 지역

인원 15명 내외

대상 교구 내 청소년

(2002.1.1.~2009.12.31. 출생자)

마감 2.25(화)

참조 www.csdy.or.kr

문의 031) 360-7922 제1대건청소년회

직암회 월례미사

일시 매월 넷째주 토요일

장소 수원교구청 2층 대강당

일정 15:15 시노달리타스를 위한 성체조배

15:30 시노달리타스(위원회별)

16:40 순교자 호칭기도

17:00 미사

18:00 식사나눔

문의 031) 268-2210 직암선교후원회

교정사목위원회 월례기도모임

일시 2.19(수) 10:30~16:00

장소 교정사목위원회 밝음터

준비 묵주, 미사도구

문의 031) 446-7909 교정사목위원회

양지 영성교육원

장소 양지 영성교육원

예수마음기도

강사 권민자 수녀

일시 3.1~3, 5.23~25, 6.13~15

시작 17:00~마침 15:00 2박 3일

비용 20만 원

효소절식

일시 2.21~23, 4.1~5, 5.23~25

내용 몸과 마음을 비우고 새롭게 채우는 시간

비용 2박 3일 27만 원, 4박 5일 40만 원

효소값 포함

문의 031) 321-9054, 9060 양지 영성교육원

제159차 비다누에바 피정(청장년)
 일자 4.11(금)~13(주일) 2박 3일
 장소 간등이 피정의 집
 인원 선착순 49명
 비용 13만 원
 기간 3.5(수) 10:00~28(금)
 참고 v2.casuwon.or.kr '교육행사'
 문의 031) 360-7636 제2대리구 청소년3국

2025 생태영성학교
 일시 3.12~4.2 매주 수요일 14:00~16:00
 장소 수원교구청 2층 대강의실
 주제 생태위기 시대에 그리스도인의 응답
 비용 2만 원
 문의 031) 465-8311 생태환경위원회

직암회 창립 18주년 기념식 및 시노드 여성 피정
 일시 3.1(토) 09:30~16:00(미사 15:00)
 장소 수원교구청 2층 대강당
 강의 이창민 신부(살레시오회 서울관구)
 문의 031) 268-2210 직암선교후원회

인준 단체 알림



미사·피정

한국외방선교회 후원회 미사

일시 2.17(월) 10:00. 송탄 성당
 2.18(화) 10:00. 영통성령 성당
 2.19(수) 10:00. 비전동 성당, 안중 성당
 성남동 성당
 2.21(금) 10:00. 철산 성당, 하안 성당
 14:00. 북수동 성당
 2.28(금) 10:00. 신갈 성당
 문의 02) 3673-2525 한국외방선교회

성령쇄신 봉사회 찬미와 말씀, 미사

일시 매주 금요일 20:00~23:30
 장소 제2대리구청 교육관 성령쇄신 기도의 집
 강의 2.21 김종국 신부
 2.28 교구 없음(각 지구 실시)
 문의 031) 251-4400
 수원교구 성령쇄신 봉사회

제주 면형의 집 피정

추자도 포함
 일시 3.1~4, 3.9~12, 4.2~4
 4.12~15, 4.27~30

생태순례

일시 3.17~19, 3.22~24
 3.28~30, 4.7~9, 4.22~24
 내용 수사·신부들과 제주성지, 역사
 생태순례와 성무일도
 미사를 함께하는 산들평화순례
 문의 02) 773-1463, 064) 756-6009
 제주 면형의 집 피정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성 도미니코 선교수녀회 피정

성경완독
 일시 3.14(금)~22(토), 4.4(금)~12(토)
하느님, 바람, 나(힐링 피정)
 일시 3.28(금)~30(주일)
 문의 010) 3340-0201
 횡성 도미니코 피정의 집

성체현시와 성모송 천번 기도회

일시 2.17(월) 12:30~17:00
 장소 삼성산 피정의 집 대강당
 문의 02) 874-6346
 삼성산성령수녀회, 사랑의성령봉사회

마리아사제운동 체나콜로 월례미사

일시 2.20(목) 14:00~16:00
 장소 수원교구청 지하 강의실
 미사 유승우 신부
 문의 010) 9424-2701
 수원교구 마리아사제운동 체나콜로

제주 성 이시돌 자연순례 피정

일시 3.8~10, 3.13~16(추자도)
 3.18~20, 3.23~26(추자도)
 3.29~31, 4.1~3, 4.5~8(추자도)
 4.10~12, 4.14~16
 내용 성 이시돌 목장 내 성지에서
 삶과 성지순례, 제주여행, 자연순례
 (2025년 피정 접수 중)
 문의 02) 773-1455, 064) 796-4182
 성 이시돌 피정의 집

온총의 성모마리아 기도학교 기획피정

일시 3.14(금)~16(주일). 서상범 주교
 4.17(목)~20(주일). 성주간 피정
 5.16(금)~18(주일). 전현호 신부
 6.20(금)~22(주일). 정남진 신부
 문의 043) 651-4563
 온총의 성모마리아 기도학교

교育·모집**해외 가톨릭 사립학교 학생**

입학 (정규)초5-고2
 미국 · 아일랜드(단기 가능)
 주관 그리스도 레지오회 운영 해외학교법인
 문의 02) 2258-8983
 oakinternational.co.kr
 그리스도의 레지오 수도회

이론연구소 23기 신입생

개강 3.4(화)
 장소 가톨릭출판사(서울 종구 중림로27)
 신관 6층
 지도 장금선 신부
 내용 이론제작 및 연구
 과정 3년 과정
 대상 만65세 미만
 실기 2.22(토), 2.24(월) 10:30
 문의 02) 313-9973 이론연구소

ICPE 선교회 청년 제자훈련

일시 3.22(토) 15:00(OT)
 과정 1년 과정
 문의 010) 5646-6594 ICPE

가톨릭 차야카데미 입문반 11기 모집

일시 매주 수요일 14:00~16:00
 (1학기- 15주, 2학기- 15주)
 장소 성 라자로 마을 내 가톨릭다례문화원
 비용 1학기 입문반(25만 원)
 문의 010) 6478-5144
 가톨릭다례문화원

성물, 수제목주 조각 교육

신청 cafe.naver.com/cmc04
 문의 010) 5234-5044 가톨릭목공예



기타

**가톨릭여행사 해외 성지순례**

일정 3.24 이탈리아 알프스 프랑스 11일
 4.22, 5.13 이탈리아 일주 11일
 415만 원
 5.3 체코 폴란드 발칸 메주고리예 15일
 5.20 유럽 4개국 성모님 3대 발현지
 12일
 6.5 울뜨레이야 로마 세계 대회 참가단
 12일
 참고 가톨릭회관 619호
 문의 010) 3866-2533 가톨릭여행사



로마서

'로마서 입문·주해'는 바오로가 선포한 복음, 하느님의 의로움과 구원 계획, 복음을 따르는 삶에 대한 가르침을 충실히 해설합니다. 로마서는 신학적·영성적으로 풍성한 가르침을 담고 있기에 그리스도교 역사 내내 하느님 백성에게 영적 양식이 되어 왔습니다. 이 주해서와 함께 로마서 본문을 천천히 읽고 곰곰이 되새길다면, 그 말씀에 담긴 보희를 발견할 것입니다.

저자 | 토마스 H. 토빈 S.J. 외
금액 | 2만1천 원
문의 | 02) 822-0125 성서와함께

요한 복음
말씀여행

마태오 복음서, 마르코 복음서, 루카 복음서에 이어 요한 복음서의 발간으로 4복음서의 말씀여행 시리즈가 완간되었습니다. 이 책은 신자들이 소공동체 모임을 통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나누며 주님께서 선사하시는 평화와 기쁨을 맛보게 하는 동시에, 소공동체 모임에 더 큰 활력을 주고 신자들이 말씀으로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자 | 한국통합사목센터
금액 | 1만 원
문의 | 02) 762-1194 기쁜소식

2025 동고동락 동G0동樂

| 활동내용 | 꽃뫼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과 함께 하는
교류 및 멘토링 활동
연 6회 정기 야외 체험 활동
(사전교육 및 평가회 별도)

| 모집인원 | 15명 내외

| 모집대상 | 교구 내 청소년
(2002.1.1~2010.12.31 출생자)
| 신청기한 | 3.11(화)까지
| 문의사항 | 031) 360-7923 www.csdy.or.kr
(재)대건청소년회

